

성령강림절은 오순절(히:Πεντηκοστ, 영 Pentecost)을 말한다. 어원은 "50"이란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의미하는 신약적 명칭이다. "오"는 다섯이며 "순"은 열흘로 5번의 열흘이 지난 날이라고도 한다. 이는 구약에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로 1500년의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 사건이 후 성령강림절 곧 오순절로 확고히 되었으며, 하나님의 절기로써 기독교인들이 지켜야하는 절기인 것이다. 이날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욥2:28,29,32,행2:21)는 말씀이 성취된 날이다.

성령강림은 예수님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제자들은 물론 주를 믿는 만민에게 함께 하시므로 보호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을 완성시켜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성령강림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다.

속죄함과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영적인 첫 열매들인 120여 문도들을 추수한 날로 그들은 능력과 진리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행2:6-11,37-42). 교회공동체가 이루어져 예루살렘교회가 탄생되어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행3:1-11),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행3:20-32)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 이방을 대상으로 세계 복음화가 시작케 된 것이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믿는 자와 함께하시며, 믿을 자를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그분의 역사를 취하하거나 말소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며, 끝까지 함께하시며,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시고 믿음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전인적인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깨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희생이나 손해가 있다고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느냐가 핵심적이며 실제적인 문제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 안에 있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로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므로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롬8:6-8).

영으로 사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 믿음과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중심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해도 이에 억매이지 않고 뛰어넘어 그러한 속에서도 의를 추구하게 되고, 환경을 이기는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된다. 구원에 대한 희열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하나님나라(현재성)에 거하게 된다.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데 헌신케 된다. 이것이 성령강림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은 행위적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변화된 결과로 오는 믿음의 실체인 것이다. 또한 택함을 받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실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영광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으로 회복시켜 사랑의 대상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키 위해 택한 자를 취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도록 성령강림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성령강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이며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강림절은 우리에게 안타까이 묻고 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직은 주님이 기회를 남겨 놓으셨다.

두산베 선교 소식

마지막때 있을 선교에 대한 저의생각은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해져만 가는 중국과 일본은 점점 침몰되어져 결국 망해가고 온 세계에 주님의 지상 명령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교하는 한국은 세계에 우뚝서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안정되어 세계 위에 우뚝 서서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침몰되어 한국이 인수해서 남북 통일이 될것이며 마지막 선교를 한국이 중국을 이끌고 땅끝인 예루살렘을 향해가고 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수 있도록 깨어있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순종하며 준비하는 순간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구소련의 비극이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따라 지혜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만 낱알을 준비 할 수있기를 기도합니다.

-타직스탄 최OO 선교사-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6월 20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3명 자체파송 7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4

살롱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린도전서 15:14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 문입니다.

무슬림(이슬람종교를 믿는자)들에게 복음은 받아들일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루5번씩 오직 알라만이 주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종교절(라마단)기간중입니다. 코로나로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 이라크 난민(기독교)학교는 코로나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코로나로 부터 안전하고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선생님'이남'은 40대 여성이지만 아직 결혼을 못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 두아가정은 이라크 난민가정입니다.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이 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족이 현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남편은 이라크 다른 무슬림 난민들이 자신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본 후로 두려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이 가정이 믿음으로 자라고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 한국 사역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고 집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싸워가고 있는 사역자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로인해 전도의 발걸음이 점점 묵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복음 전도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4'고재명 이순화 창현 은정

아들 창현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랍에서 유년,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되어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정이는 이제 고3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아 살아가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날마다 성령충만하여 이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2. 이라크난민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3. 무슬림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영의 진이 깨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4.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아픈 사역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5. 저희 가정의 거주와 안전을 위하여

-비자를 받지 못하고 지난 4여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지내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하여

-요르단 고자크, 이시호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5월 7일 오후 4시에 있었던 히말라야 라닥에 살던 성도 하나의 천국 입성예배 소식을 드립니다. 가족 네분이 코로나에 걸렸으나 모두 다 회복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 음식도 드시고 과일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곧 주께로 가셨습니다. 인도에 있을때 늘 가까이 가족처럼 지냈던 분들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쿤단 목사님의 가정과 모두 알고 지내던 식구와 같은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일곱식구가 수천 km 달려서 방문했던 고산지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라닥의 레에서 엄숙하게 진행된 약 2시간의 장례식은 코발트 블루의 하늘처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의 이 생의 마지막으로 승차한 차는 볼레로라는 인도에서 평범한 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관에 순전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줌으로 온라인 상으로만 비대면으로만 지켜보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가족이 함께 할수도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글을 올리게 된것은 누구도 피할수 없는 죽음 앞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후회함이 없이 부르심에 상을 바라며 우리의 경주를 해야하고 주님 앞에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힌디어로 시온데시, 하마라 해 데시, 라헤데 헤 함 바르데시, 자영게 함 아프네 데시, 할렐루야 라는 1978년에 만들어진 힌디어 찬양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해봅니다.

이사야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시온은 우리의 집, 우리는 여기 순례자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절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의 영원한 집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2 절 세상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자 우리는 영원의 고향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 / 쾌락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 / 쾌락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3 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예수님 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 될 것이며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인도의 행복 나눔의 소식 전해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하리드와르에서 진행되었던 힌두 축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갠지즈 강에 몸을 씻으면 죄가 사라지고 윤희의 굴레를 벗어 나기 쉽다고 여깁니다. 하리드와르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데라둔이 2차 파동의 핫스팟 중의 하나로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산소 호흡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여년 가까이 함께 해왔던 현지인 목회자로 산을 통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산소통들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자나 경찰과 가난한 사람들도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들이나 과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역자들에게도 쌀, 밀가루, 콩, 식용유를 공급하였고, 가난한 환자들에게도 의약품과 소독제 등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의 행복 나눔의 나눔과 헌신으로 현지인들이 많은 위로와 혜택을 받게 되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김시하, 조모기 선교사-

5월부터 저는 청(소)년부에서 노인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블라드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구요. 기도 부탁드린 내용 중에 교회 리모델링과 가족 건강에 대해 감사함으로 소식 전해 드립니다. 30대의 고스짜 형제는 바닥 타일 시공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했었고, 딸과 아들은 2년 전까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4월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고스짜는 13살 아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진지한 모습이 인상에 남아 있었는데, 지난 주에 자비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타일을 사고, 일이 끝난 후에는 교회에 와서 직접 시공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마가는 기도 부탁 다음 주부터 유치원에 가도 관심을 정도로 좋아졌고, 이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청년들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2. 현지 전도사(블라드)에게 맡겨주신 청(소)년부 사역과 영커플 모임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 청년들이 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3.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구제사역, 교회 리모델링, 신학공부).
4. 노인부를 섬기는 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공효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굳건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5.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잔이 흘러 넘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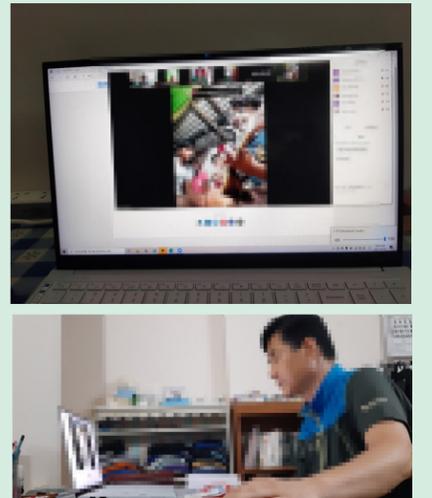
-러시아 우슬리스크 장석희 악사나 선교사-

인도 소식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장13)

인도 현지의 상황

저희가 있는 인도에는 하루30 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주 전에는 저희와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확진되었고 또한 한인 선교사들과 자녀들까지도 코로나 확진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한인 단체 카톡방에다 빨리 코로나 응급처치 약들을 구입 할수 있도록 광고를 올리고 확진자 분들에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집집마다 배달 하여서 이약 을 드시고 빨리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호흡이 90 밑으로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가 긴급으로 필요한 분들도 있었지만 긴급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칠 전에 저희 사역자들과 한인 선교사 분들이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휴우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 중보 기도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은 힘든 상황속에서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전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사역자들과 같이 Zoom으로 미팅하면서 기도회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길을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코로나 펜데믹 상황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사역자와 교인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 정호지, 전모호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네팔 이예신 선교사-혈액암으로 아직투병중이시고 다리가 아프셔서 검진겸 한국에 들어오셔서 치료 중 이십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5월11일부터 7주간(주 5일)전립선 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현재 왼쪽 골반과 왼쪽발 뒤꿈치 통증이 있어 일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을 이겨 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넘치길
5. 중국 박OO-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시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회복과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7.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경희 사모님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은성식 선교사님의 폐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8. 파나마 김재한 선교사 - 28일 전립선을 위한 의사검진 예약이 되어있고 조직검사를 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안하고 약으로 치료하여 속히 선교지로 복귀할수 있도록.